XBRL 택사노미의 효과적인 재활용을 위한 컴포넌트 기반 전자문서 개발에 관한 연구

박찬권, 김형도
chankwon@hycu.ac.kr
한양 사이버 대학교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17번지
02-2290-2812

키워드 : 확장성비즈니스보고언어(XBRL), 핵심컴포넌트(Core Component), 확장성표기언어(XML), 기업간전자거래

- Abstract -

비즈니스 보고의 내용과 의미를 공유할 수 있는 XBRL 응용이 활성화되면서, 국가적인 수준에서의 표준화와 함께, 체계적으로 구성요소들을 재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국가적으로 전자문서 표준화는 'XML 전자문서 개발 지침'을 준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지침에서는 핵심 컴포넌트 방법론과 함께 비즈니스 라이브러리를 제공하여 재활용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다. XBRL은 기업 보고 문서의 구성요소들을 XSD로 정의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전자문서 표준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나, 개념들의 유형이 특정하게 한정되어 있고 이들 개념들을 연결하고 부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관계 유형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전자문서 표준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따라서 'XML 전자문서 개발 지침'을 적용하여 표준화하기에는 문제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XBRL 문서의 체계적인 재활용과 국가 표준화가 가능하도록, UN/CEFACT의 핵심 컴포넌트 방법론을 적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그 가능성을 사례를 통해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금융감독원의 XBRL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이 방법을 적용해 보고, 그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